

남다른 '축구 DNA'...K리그 뛰는 형제들



전북 이범영·강원 이범수 형제



상주 이창근·안산 이창훈 형제



전북 홍정남·홍정호 형제



제주 이동희·서울이랜드 이건희 형제



K리그에 형제들이 뛰는

올 시즌 그라운드에서 주인공을 꿈꾸는 형제들이 있다. '축구 DNA'를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남다른 각오로 2020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 이범영과 강원 이범수는 가장 주목받는 형제다.

형제가 K리그에서 뛰는 것도 쉽지 않지만 포지션도 골키퍼로 같다.

형 이범영은 2008년 부산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해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2014 브라질 월드컵, 2015 동아시안컵 우승 등을 일궈내며 K리그와 대표팀을 오가며 탄탄한 경력을 쌓았다.

2010년 전북에서 프로에 데뷔한 동생 이범수는 경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서울 이랜드, 대전을 거친 뒤 경남에서 빛을 보고 있

다.

2017년 경남 주전 골키퍼로서 팀의 승격 일등공신이 된 이범수는 그해 K리그2 베스트일레븐에도 선정됐다.

올 시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두 형제의 수문장 대결이 펼쳐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전북의 홍정남과 홍정호는 한솔밥을 먹는 동료이자 형제다.

골키퍼인 형 홍정남은 2007년 전북에 데뷔한 이후로 군복무(상주) 기간을 제외하고 전북에만 몸담은 원클럽맨이다. 동생 홍정호는 2010년 제주에서 데뷔해 FC 아우크스부르크, 장수 수닝 등을 거쳐 2018년 전북으로 왔다.

두 형제는 전북에서 두 시즌을 같이 했지만 아직 같은 그라운드에 오른 적이 없다.

전북 이범영·강원 이범수 골키퍼 경쟁

홍정남·홍정호 전북서 한솔밥 동료

상주 이창근·안산 이창훈 주전급 활약

제주 이동희·서울이랜드 이건희 형제도

앞서 임대 신분으로 전북에 몸담았던 홍정호가 올 시즌 전북으로 완전 이적하며 두 형제의 동반 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형이 골문을 막고 동생이 수비라인을 지키는 모습은 올 시즌 K리그의 관심사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상주 골키퍼 이창근과 안산 공격수 이창훈은 빼

놓은 외모로 눈길을 끈다.

한 눈에 봐도 형제임을 알 수 있는 외모에 키도 형 이창근이 186cm, 동생 이창훈이 187cm로 비슷하다.

2018년 형 이창근이 활약 중이던 제주에 이창훈이 입단하며 두 형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하지만 팀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던 형과 달리 그 데뷔한 이창훈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2018년 여름 이창훈이 안산으로 이적한 뒤 서서히 경기 출전 수를 늘려갔고, 이후 두 형제 모두 각 팀의 주전급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상무에 입대한 이창근은 K리그 상주에서, 이창훈은 K리그2 안산에서 형제의 활약을 이어간다.

제주 미드필더 이동희와 서울이랜드 공격수 이건

희는 'K리그 별'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이동희는 2018년 제주에 입단해 출장 횟수를 늘려나가는 3년 차 수비수다. 이동희의 두 살 터울 동생인 이건희는 올해 서울 이랜드의 신인으로 프로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희는 지난해 대학교리그(U리그) 4관왕 득점왕에 오른 올 시즌 주목받는 신인.

한양대 재학시절부터 나란히 팀의 주요 선수로 활약했던 형과 동생은 같은 팀의 주축 선수가 돼 K리그에서 다시 만나는 꿈을 꾸고 있다.

한편 성남에서는 형 남궁도 U-15 감독과 남궁용 프로 코치가 코칭스태프로 만난다. 또 올해 경남의 주장을 맡은 하성민은 지난해 은퇴한 형 하대성의 등번호인 16번을 달고 그라운드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우수 학생선수 27명에 장학금

체육인재장학금금 이자분으로 지급

광주시체육회가 우수 학생선수인 체육인재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시체육회는 2019년 체육인재장학금에서 발생한 이자분을 종목단체 우수 학생선수 27명을 선발해 10일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애초 행사를 통해 전달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 및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함으로써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검도 양욱(조선대 3년), 복싱 김재현(남부대 2

년) 등 초·중·고·대학부 총 27명(초 3, 중 10, 고 9, 대 5)의 체육인재장학생에게 1720만 원(1인 초 30만원, 중 50만원, 고 70만원, 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체육인재장학생은 각 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선발했다.

김창준 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훈련 시기에도 각자 개인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 27개 학교운동부 2억여원 지원

전남도체육회가 '전남체육의 미래'인 학교운동부 지원에 나섰다.

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교부되는 2020년도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2억 1150만원을 17개 종목, 25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운동부지원사업은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와 경기용품 지원 등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의 훈련 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학생선수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3월 12일 학교체육위원회를 개최해 신청하

교의 심의를 거친 전남도체육회는 검도, 육상, 양궁 등 17개 종목 25개 학교를 19년도 등록선수, 장비 구매 필요성, 사업 참여의지, 종목평가, 입상실적, 운동부구성 등의 선정 심사 기준표에 따라 지원한다.

김재무 도체육회장은 "학교별로 필요한 용품을 지원받아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쿄올림픽 연기에

세계 메이저대회도

도미노 일정 조정

2020 도쿄올림픽 개최가 1년 늦춰지면서 각종 세계 대회 일정도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리는 제18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일정을 2022년 7월 15~24일로 변경했다. 애초 2021년 8월 6~15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가 1년여 미뤄진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쿄올림픽 개막이 2020년 7월에서 2021년 7월로 밀리자, 육상 선수들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동시에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세계육상연맹은 개최지 미국 오리건주와 논의해 '2022년 개최'에 합의했다. 일정은 2022년으로 예정된 영국영방경기대회(7월 27일~8월 7일·영국 버밍엄), 유럽육상선수권대회(8월 11일~21일·독일 뮌헨)와 겹치지 않게 짜여졌다.

이로써 1983년(핀란드 헬싱키)부터 1991년 3회 대회(일본 도쿄)까지 4년 주기로, 이후 2년마다 대회를 치렀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이번에 최초로 '짝수 해'에 열리게 된다.

2021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개최 시기를 1년 연기, 2022년 5~6월에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교통통신은 9일 대회 관계자의 입을 빌려 "내년 7~8월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대체 일정에 대해 국제수영연맹(FINA)과 대회조직위원회 등이 2022년 5~6월을 유력한 후보로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애초 내년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개최 일정이 내년 7월 23일~8월 8일로 연기되자, 올림픽 일정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일정과 겹치게 됐다.

FINA는 바로 대회조직위와 일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프로배구 남녀 MVP에 나경복·양효진

개인 첫 수상 영예

신인왕엔 정성규·박현주

화려한 조명도, 축하해주는 팬도 없었지만, 나경복(우리카드)과 양효진(현대건설)은 생애 첫 프로배구 최우수선수(MVP) 트로피를 들고 밝게 웃었다.

나경복과 양효진은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도드람 2019-2020 V리그 팀·개인상 전달식에서 남녀 MVP로 나란히 뽑혔다.

나경복은 기자단 투표 30표 중 18표를 얻어 대한항공 안드레스 비에나(10표), 우리카드 펠리페 알톤 반데로(2표)를 제치고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5-2016 V리그남자부 신인왕을 차지했던 나경복은 4년 만에 MVP까지 석권했다.

그는 김학민(KB손해보험), 신영석(현대캐피탈)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신인왕과 정규리그 MVP를 모두 차지한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나경복은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491점(전체 6위)을 기록했고, 공격 종합에서도 성공률 52.92%로 전체 4위, 국내 선수 2위에 올랐다.

우리카드는 첫 번째 MVP 배출의 기쁨도 안았다. 역대 16차례 MVP 중 우리카드 출신은 나경복이 처음이다.

여자부에서는 양효진이 30표 중 24표를 얻어 각각 3표를 얻은 이다영(현대건설), 발렌티나 디우프(KGC인삼공사)를 가볍게 제쳤다.

양효진은 올 시즌 11시즌 연속 블로킹 1위(세트당 0.853개)에 오르고, 센터로는 가장 많은 429점(전체 6위)을 기록했다.

아울러 여자부 최초로 5500득점(5562점), 블로킹 성공 1200개(1202개)를 돌파하는 등 금자탑도 쌓았다.

양효진 역시 프로 데뷔 후 첫 MVP를 수상했다.

인생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남녀 신인왕엔 정성규(삼성화재)와 박현주(흥국생명)가 뽑혔다.

투표와 기록으로 뽑은 남자 베스트 7엔 나경복,



프로배구 MVP를 차지한 나경복(왼쪽)과 양효진.

정지석(대한항공·이상 레프트), 비에나(라이트), 신영석, 김규민(대한항공·이상 센터), 한선수(대한항공·센터), 이상욱(우리카드·리베로)이 뽑혔다.

이재영(흥국생명), 강소휘(GS칼텍스·이상 레프트), 디우프(라이트), 한송이(KGC인삼공사),

양효진(이상 센터), 이다영(센터), 임명욱(한국도로공사·리베로)은 여자 베스트7을 이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남녀 MVP에게 상금 500만원을, 감독상 수상자에게 300만원, 남녀 신인왕과 베스트7에게 상금 200만원씩 수여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물리학 천재, 풀리지 않던 사람의 해답을 찾다!
7번째 이별중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2관 인비저블맨
- 3관 오픈 더 도어
- 4관 n번째 이별중
- 5관 오픈 더 도어, 신과 나: 100일간의 거래, 더 터닝,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 9관 주디, 신과 나: 100일간의 거래
- 7관 씨네카툰 월드 워 Z, 정직한 후보
- 8관 씨네카툰 1917, 기도의 힘, 더 터닝,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명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